

사회

“당당한 사회인 되어 좋은 詩로 행복 나누고 싶다”

2013 희망을 여는 사람들

<1>취업 꿈 부문 장애 시인 박기종씨

끝없는 불황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소외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잘못된 마음을 먹은 이도 적잖다. 하지만 모두가 99%의 불가능을 바라볼 때, 1%의 가능성에서 희망을 일깨우며 힘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내 마음은 꽃이 핀다/인생은 꽃 핀 인생/화분에 물을 주고/마지막을 위해/꽃을 준비한다.....”(시 ‘꽃 핀 인생’중)

장애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는 같은 처지의 장애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희망 전도사’로 우뚝 서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다.

그는 현재 이 대학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 중이다.

“제가 많이 소심했었어요, 취업하러 나가 준비 할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선 고통이 필요하듯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죠.”

광주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폴리텍V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중인 박씨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희망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고, 끝인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죠”고 말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박씨의 삶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써 온 시를 모아 ‘마음의 향아리’라는 시집을

광주폴리텍V대학 입학 시 쓰고 광고디자인 공부

난치아동 바자 참여 시집·음반 기부도

냈고, 대학에서는 ‘무지개와 날개’ ‘장미꽃 비누’라는 시집을 내고 여전한 시인으로서 이름도 얻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맞서야 하는 그로선 비장애인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광주폴리텍V대학에 입학한 것도 힘든 선택이었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당당히 나가기 위해 취업을 하고 경험도 쌓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광고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사귀면서 새로운 희망도 보였다. ‘광고 디자인과 식구들’이라는 시를 쓰고 학생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는 늘 바쁘게 뛰고 있다. 남다른 재능으로 봉사하고 자신과 같은



박기종(맨 왼쪽)씨가 지난 31일 광주폴리텍V대학 학과 컴퓨터 작업실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광고디자인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부모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다.

지난달 8일과 18일에는 ‘희귀난치아동 치료비 마련 재능나눔 희망 바자’에 참여, 시낭송을 하고 시집과 ‘마음의 향아리’라는 자신의 곡이 담긴 음반도 기부했다.

시를 쓰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박씨는 “글은 또 다른 의미에선 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이라며 “지금처럼 나의 글로 이쁜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시를 담은 시화와 광

고디자인을 배우면서 학생들과 만든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빨리 취업해 일하고 싶어요. 일해서 돈 벌어야 장가도 갈 수 있잖아요.”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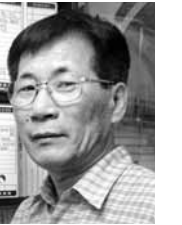
나원침 (8722) 김종두



5·18유족회

정수만 회장 사퇴

21년 동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을 맡아 왔던 정수만(66·사진) 회장이 사퇴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 29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정 회장의 사표를 받아들기로 결정하고, 오는 5일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정 회장은 5·18 백서 발간에 매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유족회 회원들이 정 회장의 사퇴를 만류해 최근까지 문건영 부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해왔다.

한편 정 회장은 최근까지 5·18 당시 일지와 구제적 상황 등을 요약해 1200페이지 가량 작성했으며 조만간 백서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방학기간 감차운행

광주시는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9일간 광주 시내버스를 감차운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평소 94개 노선 930대를 운행했으나, 겨울방학동안 학생승객 감소가 예상되는 41개 노선에서 73대(7.8%)를 감차·운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차에 따라 대형버스가 운행되는 간선은 1~3분, 중형버스가 운행되는 간선은 3~4분 정도 배차간격이 늘어 나게 된다.

시는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를 통해 기존 배차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시내버스 감차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광역시서비스운영정보(bus.gj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생이 담배피운다’ 혼계하다 난투극

○“새벽에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혼계하던 30대 남성과 고등학생이 난투극을 벌여 폭행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35)씨와 김모(17)군은 지난 30일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에서 말쑥함을 벌이다가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학생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거칠게 말을 걸다 보니 싸움으로써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아파트 단지에 대선용 빈 투표함

SNS에 유포돼 선관위 조사 나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선용 빈 투표함 2개가 방치된 채 놓여있는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3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모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 근처에서 대선용 빈 투표표 2개가 발견됐다. 이날 SNS에는 방치된 빈 투표함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발견된 투표함은 지난 11월 중순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도권 업체에 의뢰해 제작됐는

데 해당 업체 사장 지인이 업체의 허락 없이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대선 때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의 반출 경위 등을 엄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업체에서 제작한 투표함이 광주에서 발견된 점과 투표함이 허술하게 반출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민기자 cki@kwangju.co.kr

새해 눈... 한파

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내륙으로 확장되겠다.

눈은 대부분 오후에 그치고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광주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목포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영광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등 대부분지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1전비 소속 탄약고 수천억 들여 비행장내 이전 추진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어찌라고”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수천억여원을 들여 탄약고를 새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고착화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005년 군용시설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일대 34만㎡에 조성된 제1전투비행단 소속 탄약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탄약고는 지난 1976년에 조성됐으나 현재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등 도심에 위치해 군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광산구에 있는

군비행장 기지내로 새롭게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탄약고 이전 및 안전구역 확보사업’은 총 2547억원을 들여 광산구에 있는 공군 비행장 인접 신촌동 및 도호동 일대 196만㎡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업무를 실시해 현재 120만㎡ 가량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오는 2015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공군 비행장의 경우 광산구 주민들이 10여년째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 최근 국회에서 ‘군공

항 이전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 시민연대 배영모 수석대표는 “수천억여원을 들여 탄약고를 현재의 공군 비행장으로 옮기다 보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해 광산구마저도 탄약고 이전을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 이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번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해당 부대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탄약고 신설 문제는 별개의 상황이다”라며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군 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는 등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탄약고까지 공군비행장으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돼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청소년 놀이된 ‘프리허그’

주최·관리자 없어 대부분 재미삼아 참여

연말 연시 순수한 의미로 진행됐던 ‘프리허그’가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단순한 놀이로 변질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해가 마무리돼 가던 지난 30일 오후 6시께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옛 된 모습의 청소년들이 행인에게 “안아주세요”를 외치며 프리허그를 펼치고 있었다. 충장로 우체국 4거리에는 20여 명이 프리허그를 위해 도열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무려 150여 명이 몰렸다.

“언니 한번 땡겨줘”라는 피켓을 들고 프리허그를 진행하던 흥모(18)군은 “친구들과 내기에서 져서 프리허그를 하게 됐다”며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옹을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하자”는 프리허그의 애초 취지는 인중에 없었다.

흥군뿐만 아니라 프리허그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프리허그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했다. 고민들은 얼마 뒤 여수시 화정동 한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A씨의 체

스에는 무려 150여 명이 몰렸다.

“언니 한번 땡겨줘”라는 피켓을 들고 프리허그를 진행하던 흥모(18)군은 “친구들과 내기에서 져서 프리허그를 하게 됐다”며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옹을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하자”는 프리허그의 애초 취지는 인중에 없었다.

흥군뿐만 아니라 프리허그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프리허그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했다. 고민들은 얼마 뒤 여수시 화정동 한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A씨의 체



지난 30일 청소년들이 광주 충장로에서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속해서 늘어갔다. 혼잡한 연말·연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들 중 몇몇은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포옹을 해달라거나,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따기도 해 보는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따른 탈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무질서

하게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불안의 목소리도 높다.

주변 상인들은 “가게 통로를 막아 손님의 발길이 끊긴 데다가 프리허그를 하는 청소년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여수서 여성 납치 성폭행 시도

20대 피한 2명, 50대 위협 57만원 강탈

여수에서 2인조 피한이 중년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화정동 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서 A(여·56)씨가 20대 추정

되는 피한 2명에게 납치됐다. 시종 상인인 A씨는 경찰에서 “귀가하려고 차에 타는 순간 마스크 등을 착용한 납치 2명이 흉기로 위협하면서 뒷좌석에 태웠다”고 말했다.

피한들은 얼마 뒤 여수시 화정동 한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A씨의 체

크카드로 현금 57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한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거세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한들은 1시간 10여분 뒤인 이날 오후 7시10분께 납치장소와 300여m 떨어진 여수시 화정동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차를 놓고 달아났다. 편의점 CCTV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의 체크카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남성

은 어두운 계통의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한들이 A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했고, 말을 극히 꺼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구형 밴츠차량을 탄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1분

달돋이 21시 17분 달질 09시 43분

구름사이 일출

구름많고 눈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최고/기온	-4/3
목포	최고/기온	-2/3
여수	최고/기온	-2/3
나주	최고/기온	-5/3
완도	최고/기온	-2/5
구례	최고/기온	-4/3
강진	최고/기온	-4/4
고흥	최고/기온	-4/5
장흥	최고/기온	-4/5
순천	최고/기온	-3/5
영광	최고/기온	-6/2
진도	최고/기온	-2/4
전주	최고/기온	-5/2
군산	최고/기온	-6/2
남원	최고/기온	-8/1
홍산도	최고/기온	3/5

계곡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관심	보통	낮음
먼바다	남서~서	1.5~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계곡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3.0m	목포	04:08	09:27
먼바다	서~북서	1.0~3.0m		16:44	22:0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3.0m	여수	11:27	04:59
먼바다	서~북서	1.0~3.0m		23:34	17: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민번호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4/1	-6/-1	-7/0	-5/2	-3/3	-2/2